

부모의 미디어 중재유형이 청소년의 방송프로그램 등급제 실효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s of Parental Media Mediation Types on Adolescents' Perception of the Usefulness of the Broadcasting Rating System

송원숙, 심재웅
숙명여자대학교 미디어학부

Wonsook Song(athene@sookmyung.ac.kr), Jae Woong Shim(jwshim@sookmyung.ac.kr)

요약

이 연구는 부모의 미디어 중재유형이 청소년의 방송프로그램 등급제 실효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이를 위해 중학생 5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등급제 실효성은 등급제가 어린이와 청소년을 유해한 콘텐츠로부터 잘 보호한다는 믿음과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는 믿음을 의미한다. 분석결과, 중학생들이 부모의 미디어 중재가 '자율적/지지적 제한'이라고 인식할수록 등급제의 실효성이 크다고 인식하지만, '통제적 중재'라고 인식할수록 등급제는 실효성이 없는 제도라는 인식이 강하다는 점을 발견했다. 이와 함께, 폭력적 미디어에 많이 노출되는 중학생일수록 등급제는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다. 이 결과는 연령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콘텐츠를 제한하는 이유에 대해 자녀와 대화를 나누며 부모가 명확한 논리를 제시하는 중재 유형이 등급제의 실효성을 강화하는데 효과적일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 중심어 : | 부모의 미디어 중재 | 등급제의 실효성 | 청소년 |

Abstract

The aim of the study was to explore the effects of parental media mediation types on adolescents' perception of the usefulness of the broadcasting rating system. A total of 520 middle school students participated in the survey. Results showed a higher utility of 'autonomy-supportive restriction' strategy by the parents led to more positive perception of the usefulness of the rating system. This study argues that parents need to pursue a mediation strategy in which a rationale for prohibiting media contents use should be provided and in which the perspective of the adolescent is taken seriously.

■ keyword : | Parental Media Mediation | Broadcasting Rating System | Adolescent |

I. 서론

우리나라는 2001년 2월부터 방송법 제33조에 의거해

'방송프로그램 등급제(이하 등급제)'를 시행하고 있다. 등급제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방송사업자가 프로그램의 폭력성·선정성·언어사용에서의 유해

* 이 논문은 2013년 정부(교육부)의 지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3S1A5A2A03045365)
접수일자 : 2016년 05월 16일 심사완료일 : 2016년 06월 24일
수정일자 : 2016년 06월 20일 교신저자 : 심재웅, e-mail : jwshim@sookmyung.ac.kr

정도와 시청자의 연령 등을 고려해 프로그램의 등급을 분류하고 이를 방송 중에 표시하도록 하는 제도다. 방송사들은 각 프로그램의 등급을 화면 오른쪽 상단에 고지하고, 이에 대한 부연설명을 덧붙여야 한다. 예를 들어, <19세이상시청가> 프로그램은 19라는 연령표기를 프로그램 처음부터 끝까지 표시하고, '이 프로그램은 19세 미만의 청소년이 시청하기에 부적절한 프로그램입니다'라는 부연설명을 화면의 4이상 크기로 5초 이상 고지해야 한다. 등급제는 프로그램 제작을 위한 기본 가이드라인의 역할과 함께 무엇보다 어린이와 청소년이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시청여부를 스스로 판단하도록 유도하고 부모의 시청지도에 도움을 주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하지만 등급제는 지금까지 프로그램 제작이나 효과 측면에서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 프로그램 제작과정에서 선정성과 폭력성은 늘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1]. 등급제가 오히려 프로그램 제작에 선정성과 폭력성을 허용하는 역효과를 가져왔다는 비판도 제기되었다 [2]. 등급제의 효과에 대한 평가가 전반적으로 낮은 가운데, 청소년은 학부모에 비해 등급제의 효과를 훨씬 낮게 인식하고 있었다[3]. 최근 발표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만14~18세 남녀 청소년 1,000명 중 47%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정보를 차단하는데 등급제의 효과가 없다고 응답했다[4]. 정부는 사안이 불거질 때마다 등급제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왔지만, 등급제는 본연의 취지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등급제는 미디어 지형의 변화와 함께 더 중요한 문제로 대두하고 있다. 청소년의 미디어 이용이 개인화(privatization)되고 이들의 미디어 이용 전반을 자세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등급제는 청소년이 콘텐츠 시청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로서의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 그동안 등급제의 문제점에 대한 연구들은 많았다[1][3][5][6]. 그러나 등급제의 실효성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에 관한 연구는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7]. 사회인지이론에 근거할 때[8], 청소년들이 등급제의 실효성을 높게 인식할수록 실제 유해한 콘텐츠에 노출된 경우 시청중단이나 시청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고 예상할 수 있다.

기존 연구에서는 미디어와 관련해 무엇보다 부모의 역할을 강조해왔다. 부모는 청소년의 발달과정에서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존재이며 청소년의 미디어 노출을 가까운 곳에서 관찰하고 조정할 수 있는 권위를 가진 존재이기에 그 역할이 더욱 강조되는 추세다[9][10]. 실제 많은 연구에서 부모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에 따라 어린이 혹은 청소년의 미디어 이용 및 그로 인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10-14]. 등급제와 관련해서 부모는 감독과 일방적인 지시를 통해 등급에 맞지 않는 콘텐츠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도 있고, 다양한 의견교환이나 대화를 통해 콘텐츠에 주어진 등급을 지켜야 하는 이유를 설득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부모의 미디어 중재방식이 청소년의 등급제 실효성에 대한 인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했다. 이를 위해 중학생 5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부모의 미디어 중재방식은 온·오프라인 미디어에 포괄적으로 적용가능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Valkenburg et al.[14]의 지각된 부모 미디어 중재 척도(perceived parental media mediation scale)를 활용했다.

II. 문헌 검토 및 이론적 배경

1. 등급제 실효성에 관한 이론적 측면

지금까지 등급제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한 논의는 금단의 열매효과(forbidden fruit effect)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6][15][16]. 금단의 열매효과는 어린이와 청소년 보호를 위한 등급제 관련 안내나 경고내용이 오히려 프로그램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해 연령에 맞지 않는 프로그램에 대한 노출을 촉진시키는 현상을 의미한다. 대표적으로 Bushman과 Stack[6]은 실험연구를 통해 시청을 금지하는 이유를 담고 있는 정보적 문구(예: 폭력적 내용 포함)보다는 시청을 자제하거나 금지하는 경고성 문구에 노출된 피험자일수록 폭력영상을 시청하려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난다는 점을 발견했다. 이에 대해 연구자들은 경고성 문구는 정보적 문구에 비

해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심리적 자유를 제한하는 외적 요소로 인식되었을 가능성이 크며, 그에 대한 반항심리가 작용한 결과로 해석했다. Cantor와 Harrison[15]의 연구에서는 남자 어린이들은 여자 어린이들과 달리 부모나 보호자의 지도가 필요하다는 자막이 있는 폭력적 프로그램에 더욱 큰 관심을 나타냈다. Bushman은 금단의 열매효과가 청소년 뿐 아니라 성인에게서도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임을 밝혔다[17]. 하지만 음악앨범 커버[16]나 게임과 DVD 커버[7]의 경고문에서는 금단의 열매효과가 발견되지 않은 경우도 있다. 금단의 열매효과 관련 연구에 근거할 때, 등급제는 청소년에게 그들의 미디어 관련 자유를 제한하는 요인으로 간주되고 있으며 이를 회복하기 위한 심리적 반항으로 인해 제대로 작용하지 않는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사회영역이론(social domain theory)을 통해서도 등급제의 실효성에 관한 문제를 유추할 수 있다. 이 이론에서는 청소년이 자신의 사적영역에 대한 외부의 간섭(예: 부모, 제도 등)을 어느 정도 인정하는가에 따라 반항의 정도가 달라진다고 본다. 즉, 청소년의 반항은 자신의 관할이라 간주하는 사적영역(예: 심리적, 공간적)에 대한 외적 요소의 간섭이 정당하지 못하다고 인식하고 그 권위를 부정할 경우 발생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청소년은 도덕적 영역(거짓말, 도둑질)이나 사회적·관습적 영역(욕설, 폭력)에서는 부모나 규칙 등의 개입이나 간섭을 인정하지만, 친구관계나 사생활 등 사적영역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14][18].

청소년의 미디어 이용 역시 그들의 사적영역으로 간주되고 있다[14][19]. Larson은 이를 개인적 미디어 이용(solitary media use)이라 명명했다[19]. 미디어를 혼자 이용하는 환경이 보편화되면서 청소년은 자신만의 미디어 경험을 축적하는데 익숙해져있다. 이들은 미디어를 통해 사적인 자아를 발견하거나 자신의 스트레스와 기분을 조정하기도 한다. 또한 청소년은 주로 권위나 관습 및 규칙에 위배되는 내용을 담은 콘텐츠에 노출되면서 자신의 자유를 직간접적으로 침해하는 요소에 대해 거부감을 학습하며 성장하기 때문에[14], 자신의 영역에 대한 방어심리가 강하게 형성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등급제는 청소년에게 자신의 사적영역을

간접적인 방식으로 침해하는 요인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크다.

금단의 열매효과와 사회영역이론의 측면에서, 등급제 효과의 본질적 문제는 자율성(사적영역)에 대한 간섭과 방어심리 간의 긴장으로 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금단의 열매효과와 사회영역이론에서는 청소년의 자율성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 부모나 교사 등 주변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한다. 자기결정이론(self-determination theory)에서 강조하듯, 자율성은 청소년의 가장 근본적인 심리적 욕구의 하나이며 강력한 내재적 동기로 작용하는 요소다[20][21]. 자율성이 충족될 경우 태도와 행동변화를 위한 강한 동기가 형성되며 행복, 정신적 건강 등 긍정적인 결과를 낳지만, 자율성이 충족되지 못하면 비행과 불안 및 다양한 문제를 야기한다[21]. 청소년의 미디어 이용과 관련해 부모의 미디어 중재가 그들이 느끼는 심리적 긴장을 최소화하고 자율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진다면 등급제에 내재된 본질적 취지를 내면화하고 자기방어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 부모의 미디어 중재 유형과 효과

부모의 미디어 중재는 미디어가 자녀에게 미칠 부정적 효과를 막거나 완화하려는 의지에서 출발한다[22]. 일반적으로 부모는 제한적 중재(restrictive mediation), 적극적 중재(active mediation), 공동시청(co-viewing) 등의 다양한 방법을 이용한다[9][10]. 제한적 중재는 자녀가 특정 미디어나 콘텐츠에 노출되지 않도록 시간이나 규칙을 정해서 제한하는 방식이다. 적극적 중재는 설명이나 대화를 통해 자녀를 설득하는 방식이며 공동시청은 대화 없이 자녀와 함께 미디어나 콘텐츠를 이용하는 방식이다.

기존 연구에서는 적극적 중재가 다른 중재방식에 비해 미디어의 부정적 효과를 줄이는데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난다[14][23]. 적극적 중재는 부모와 자녀간의 대화와 토론에 근거하고 있어서 청소년에게 미디어에 대한 비판적 사고력을 길러주기 때문에 단기적/장기적 차원에서 효과적인 전략으로 간주되고 있다[24]. 여러 연구에서 적극적 중재로 인해 어린이나 청소년이 폭력적이

고 반사회적인 콘텐츠보다는 정보적/친사회적 콘텐츠를 선택하려는 경향이 강해졌고, 전반적인 미디어 이용 시간이나 미디어 콘텐츠 이용 시간을 줄이는 효과가 있음을 밝혔다[20]. 또한, 적극적 중재는 제한적 중재에 비해 8~12세 어린이들의 TV광고 노출에 따른 물질중심주의적 가치를 약화시키는데도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25]. 그러나 인터넷에서 자주 발생하는 음란물 노출, 온라인 폭력, 사생활 침해 등에 있어서는 제한적 중재가 더 효과적이라는 상반된 결과도 존재한다[9][26][27]. 한편, 공동시청은 대부분 효과가 없거나 오히려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28]. 최근 부모의 미디어 중재 연구들에 관한 메타분석에 따르면, 제한적 중재는 청소년이 미디어 이용(전체적인 미디어 이용시간 혹은 콘텐츠 이용시간)을 줄이는데 효과가 있지만, 적극적 중재는 청소년의 미디어 이용과 무관했다. 공동시청은 미디어 이용을 더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20].

미디어 콘텐츠 제작 및 이용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새로운 중재 방식에 관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10-14][29][30]. 그동안 미디어 중재 연구의 초점이었던 텔레비전 또한 프로그램을 시청할 수 있는 경로가 다양해지면서 기존과는 다른 중재방식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14]. 안정임은 인터넷 중재 유형을 대화형, 제한형, 동행형, 감독형으로 구분했다[11]. 이숙정과 진소현은 적극적, 공동이용, 기술적, 소극적 중재로 구분하고 이중 적극적 중재와 기술적 중재가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을 줄이는 데 효과가 있음을 발견했다[12]. Benrazavi, et al.은 기술적 중재, 감독형 중재, 제한적 중재, 인터넷 안전에 대한 적극적 중재, 인터넷 이용에 대한 적극적 중재로 구분하고, 감독형과 제한적 중재가 청소년의 온라인 게임관련 중독을 줄이는데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9]. 조연화와 배진아는 매체에 따라 중재 방식이 달라, 텔레비전의 경우 주로 제한적, 설명적, 공동시청 등의 중재가 이루어지는 반면, 고정형 인터넷의 경우는 감시나 제한적 중재, 개인미디어(예: 휴대전화, MP3)는 제한적 중재가 지배적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을 발견했다[13]. 한편, Clark는 디지털 미디어를 활용해 자녀와 부모가 함께 보다 평등하고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쌍방향적 방식의 참여학습방식(participatory learning style)을 제안했다[10]. 기존 연구는 전통적 미디어의 경우에는 적극적 중재가 효과적이지만 인터넷이나 모바일 미디어의 경우에는 제한적 중재와 관련된 전략이 효과적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부모 미디어 중재 방식에 따른 효과가 일관된 결과를 보이지 못하는 가운데, Valkenburg et al.[14]은 기존 제한적 중재와 적극적 중재를 제한의 정도와 대화의 방식 등에 따라 세분화한 모델을 제시했다. 제한적 중재는 ‘통제적 제한’(controlling restriction) ‘자율적/지지적 제한’(autonomy-supportive restriction) ‘불규칙적 제한’(irregular restriction)으로, 적극적 중재는 ‘통제적 중재’(controlling active mediation) 및 ‘자율적/지지적 적극 중재’(autonomy-supportive active mediation)로 구성된다. ‘통제적 제한’은 노골적인 제한(청소년의 미디어 콘텐츠 이용에 대해 화를 내거나 혼을 내는 방식으로 제한/금지시키는 것)과 간접적인 제한(청소년에게 죄책감이나 수치심을 불러일으켜 미디어 이용을 제한하는 것)을 포함하는 형태로 부모의 영향력이 강하게 작용하는 일방적 중재방식이다. ‘자율적/지지적 제한’은 부적절한 콘텐츠를 시청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방식이다. ‘불규칙적 제한’은 미디어와 관련해 부모의 태도나 반응이 일관되지 못한 방식을 의미한다. 처음에는 완강하다가 자녀가 완할 경우 시청을 묵인하거나 허락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한편, 적극적 중재 중 ‘통제적 중재’는 대화를 기본으로 인정하고 의견을 나누지만 자녀의 의견보다는 부모의 의견이 더 중요하게 작용하는 방식이다. ‘자율적/지지적 적극 중재’는 미디어에 관해 토론과 대화를 토대로 하면서도 청소년의 관점이나 생각이 잘 배려되는 유형이다. ‘자율적/지지적 적극 중재’가 청소년의 자율성을 가장 잘 고려하는 중재형식이라면 ‘통제적 제한’ 및 ‘통제적 중재’는 청소년의 자율성을 고려하지 않는 중재유형이라 할 수 있다. 한편, ‘불규칙적 제한’은 청소년의 자율성에 무관심한 중재유형이다.

이 모델은 기존 모델을 이론적으로 통합하고 텔레비전, 인터넷, 게임 등 다양한 미디어에 적용될 수 있는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10][31].

3. 부모의 미디어 중재와 청소년의 등급제 실효성 인식

앞선 이론들은 등급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부모의 미디어 중재가 청소년의 반항을 최소화하는 가운데 자신의 연령에 맞는 콘텐츠를 이용해야 한다는 동기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암시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Valkenburg et al.[14]의 모델에 근거해 부모의 미디어 중재유형과 등급제 실효성 간의 관계를 예상해 볼 수 있다. 부모는 자녀들이 등급에 맞지 않는 콘텐츠를 이용하게 되면, 이를 다그치거나 혼을 낼 수 있다. 또는 자신의 연령에 맞지 않는 프로그램 시청에 대해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죄책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자녀들의 사적영역을 고려하지 않는 심리적 통제 방식이기에 청소년들은 자신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있다고 느끼며 그를 방어하기 위해 등급제 준수에 대한 동기가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반면, 자율적/지지적 중재 방식을 통해 등급제에 맞지 않는 콘텐츠 이용에 대해서 자녀들에게 적절하고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면서 그들에게 전달되는 압력을 최소화하면 부모들의 미디어 관련 가이드라인을 수용하고 이를 따를 가능성이 높다. 불규칙적 제한은 자신의 사적영역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기에 등급제의 실효성과는 무관하거나 부정적인 연관을 맺을 가능성이 크다. 즉, 부모의 미디어 중재에서 청소년에 대한 자율성의 인정여부에 따라 청소년의 등급제 인식에 있어 서로 다른 결과가 예상된다. 이와 같은 가능성에 근거해 이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했다.

- 연구문제1: 청소년의 자율성을 인정하지 않는 '통제적 제한'과 '통제적 중재' 유형은 청소년의 등급제 인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2: 청소년의 자율성을 인정하는 '자율적/지지적 제한'과 '자율적/적극적 지지 중재' 유형은 청소년의 등급제 인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3: '불규칙적 제한'은 청소년의 등급제 인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III. 연구방법

1. 개요

이 연구를 위해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는 국내 한 온라인 조사 전문회사에 의뢰해 실시되었다. 설문지는 인구학적 변수, 폭력적 미디어 이용 관련 변수, 부모의 미디어 중재 변수, 등급제 실효성 관련 변수 등으로 구성되었다. 중학생 520명이 조사에 참여했다(남녀 각각 260명). 응답자들에게는 이메일 주소로 설문링크가 개별적으로 보내졌다. 참여자들은 링크를 클릭하고 컴퓨터를 통해 응답했다. 온라인 설문조사에 꼼꼼하게 대답할 경우 약 30분 정도 소요되었다.

2. 조작적 정의

2.1 통제변수

부모의 미디어 중재와 관련한 기존 연구에서는 부모의 교육정도, 응답자의 반항성, 폭력적 미디어 이용 경험 등에 따라 그 효과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6].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성별을 포함한 이들 변수들을 통제변수로 활용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교육정도는 중졸이하, 고졸, 대졸(전문대 포함), 대학원 이상의 범주형 변수로 측정했다. 반항성은 Hong 반항성 척도(Hong Psychological Reactance Scale)를 사용했다[32]. 이 척도는 '규율이나 규칙은 내게 반항심을 불러일으킨다' '어떤 일이 금지될수록 나는 그걸 꼭 해야겠다고 생각한다' '누군가가 내게 어떤 지적을 하면 짜증이 난다' 등 14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항목은 5점 척도로 측정했다. 이들 항목 전체의 평균 점수를 구해 응답자의 반항성 점수로 이용했다($\alpha=.91$, $M=2.18$, $SD=.74$). 폭력적 미디어 이용은 폭력적 내용이 담긴 미디어 활용정도를 의미한다. 폭력적 미디어는 액션영화, 액션드라마, 컴퓨터/비디오게임, 스마트폰 게임, 웹사이트, 소셜, 웹툰, 만화책, 뮤직비디오, 짧은 동영상(Youtube),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포함 12개로 구성되었다. 각 미디어에 대한 이용정도를 5점 척도로 측정했다. 12개 항목의 평균점수를 구해 폭력적 미디어 이용정도로 이용했다($\alpha=.88$, $M=2.15$, $SD=.82$).

2.2 부모의 미디어 중재 유형

부모의 미디어 중재 유형은 Valkenburg et al.[14]의 구분을 이용했다. 제한적 중재에 해당하는 통제적 제한, 자율적/지지적 제한, 불규칙적 제한은 부모가 4가지 미디어 관련 금지나 제한을 가할 때, 응답자가 계속 미디어나 콘텐츠를 이용하려고 하는 경우 부모가 보일 3가지 반응을 통해 측정했다. 4가지 상황은 ① 내용이 폭력적이라는 이유로 텔레비전이나 영화시청을 금지한 경우, ② 나이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컴퓨터 게임을 금지한 경우, ③ 나이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텔레비전이나 영화시청을 금지한 경우, ④ 컴퓨터 게임 시간을 제한한 경우다. 4가지 상황 각각에 대해 응답자들은 “내가 계속 하려고 할 경우” ① 부모님은 화를 내거나 혼을 내는 방식으로 응답할 것이다(통제적 제한), ② 부모님은 왜 안 되는지를 설명할 것이다(자율적/지지적 제한), ③ 계속 조르면 결국은 신경 쓰지 않을 것이다(불규칙적 제한)의 3가지 문항에 대해 동의 정도를 5점 척도로 측정했다. 4가지 금지 상황에 대한 3가지 반응의 평균점수를 구해 통제적 제한 방식(M=3.05, SD=1.14), 자율적/지지적 제한 방식(M=2.95, SD=1.21), 불규칙적 제한 방식(M=2.13, SD=.97) 변수를 만들었다.

적극적 중재에 해당하는 통제적 중재와 자율적/지지적 중재는 4가지 미디어 관련 대화 상황에서 응답자들이 부모가 어떤 대화방식을 보일지에 대한 평가를 통해 측정했다. 4가지 상황은 ① 영화나 게임 등의 폭력이나 싸움 장면은 실제와 다르다는 대화 상황 ② 영화나 광고에서의 삶이나 가치는 실제와 다르다는 대화 상황 ③ TV나 영화에 등장하는 인물은 거칠고 무례하다는 대화 상황 ④ 영화나 게임 등이 폭력적이라는 대화 상황을 의미한다. 응답자는 각각의 상황에 대해 ① 부모님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킬 것이다(통제적 중재)와 ② 부모님은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 지에 많은 관심을 보일 것이다(자율적/지지적 중재)의 2가지 문항에 대해 5점 척도로 대답했다. 4가지 대화 상황에 대한 2가지 반응의 평균점수를 구해 통제적 중재방식(M=2.55, SD=.84)과 자율적/지지적 중재방식(M=2.93, SD=1.05)의 변수를 만들었다.

2.3 등급제 실효성

등급제의 실효성은 방송프로그램 등급제는 ‘유해한 프로그램/내용으로부터 어린이와 청소년을 잘 보호한다’와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두 가지 항목에 대한 동의 정도로 측정했다($r=.48, p<.001$). 각 항목은 5점으로 측정했으며 두 항목의 평균점수를 응답자의 등급제 실효성 점수로 활용했다(M=2.81, SD=.96). 점수가 높을수록 실효성에 대한 동의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IV. 연구결과

1. 주요 변수간 상관관계

분석에 사용된 주요 변수간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등급제의 실효성에 대한 인식은 폭력적 미디어 이용($r=-.12, p<.01$) 및 통제적 중재($r=-.17, p<.01$)와 부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표 1]. 이는 폭력적 미디어 이용이 많을수록, 부모의 미디어 중재가 통제적 중재일수록 등급제에 대한 실효성을 낮게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부모의 미디어 중재 변수 중 자율적/지지적 제한과 자율적/지지적 중재는 강한 상관관계를 나타냈다($r=.65, p<.01$). 또한 통제적 제한은 자율적/지지적 제한($r=.44, p<.01$) 및 통제적 중재($r=.49, p<.01$)와 중간 정도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표 1. 주요 변수간 상관관계

	1	2	3	4	5	6	7	8	9	10
1	-									
2	-.01	-								
3	-.04	.54**	-							
4	-.04	.07	-.06	-						
5	-.31**	-.01	-.02	.29**	-					
6	-.13**	.03	.08	.10*	.02	-				
7	-.07	.05	.06	.20**	.09	.49**	-			
8	-.01	.05	.08	-.03	-.07	.44**	.26**	-		
9	-.01	.10*	.09*	.01	-.04	.30**	.18**	.65**	-	
10	.02	-.07	-.05	.26**	.21**	.00	.22**	.10*	.14**	-
11	.02	-.06	-.02	-.07	-.12**	-.06	-.17**	.07	-.03	-.05

* p<.05, ** p<.01; 1=성별(1=여자), 2=아버지교육, 3=어머니교육, 4=반향성, 5=폭력적 미디어 이용, 6=통제적 제한, 7=통제적 중재, 8=자율적/지지적 제한, 9=자율적/지지적 중재, 10=불규칙적 제한, 11=등급제 실효성

2. 등급제의 실효성에 대한 인식 분석¹

연구문제 1, 2,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부모의 미디어 중재유형이 등급제 실효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했다(표 2). 1단계 인구학적 변수군에는 성별, 아버지와 어머니의 교육수준, 반항성 정도가 포함되었다. 2단계에는 폭력적 미디어 이용량, 3단계에는 통제적 제한, 통제적 중재, 자율적/지지적 제한 및 불규칙적 제한 등 부모의 미디어 중재 형태 변수군이 포함되었다. 분석결과, 이들 예측변수 전체 설명량은 6%로 나타났다($F(10,487)=2.93$ $p<.01$). 1단계 인구학적 변수군은 유의미한 설명량을 보이지 않았지만, 2단계 폭력적 미디어 이용은 1%, 3단계 부모의 미디어 교육 형태 변수군은 4%를 추가적으로 설명했다(2단계: $\Delta R^2=.01$, $p<.05$; 3단계: $\Delta R^2=.04$, $p<.01$). 변수별로는 '통제적 중재'가 등급제 실효성 인식과 부적인 연관성을 나타냈다($\beta=-.18$, $p<.01$). 이는 청소년들이 자기 부모의 미디어 중재유형이 자율성을 인정하지 않는 통제적 중재에 가깝다고 생각할수록 그들의 등급제 실효성에 대한 인식이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연구문제1). 반면, '자율적/지지적 제한'은 등급제 실효성 인식과 정적인 연관성을 나타냈다($\beta=.18$, $p<.01$). 이는 청소년들이 자기 부모의 미디어 중재유형이 자율성을 인정하는 '자율적/지지적 제한'이라고 생각할수록 그들의 등급제 실효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연구문제2). 연구문제3에 제시되었던 불규칙적 제한은 청소년의 등급제 인식과 무관하게 나타났다.

표 2.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단계	변수	β	ΔR^2
1	성별(1=여자)	-.02	.01
	아버지교육정도	-.06	
	어머니교육정도	.00	
	반항성	.01	
2	폭력적 미디어 이용	-.10*	.01*
3	통제적 제한	-.03	.04**
	통제적 중재	-.18**	
	자율적/지지적 제한	.12*	
	불규칙적 제한	.00	

* $p<.05$, ** $p<.01$; β 는 위계적 회귀분석 최종 단계의 표준화된 회귀계수.

1 독립변수에 대한 사전 분석에서 '자율적/지지적 제한'과 '자율적/지지적 중재'는 다중공선성 문제가 발견되어 자율적/지지적 중재 변수는 분석에서 제외했다.

V. 결론 및 논의

이 연구에서는 부모의 미디어 중재유형이 청소년의 등급제 실효성 인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했다. 이를 위해 중학생 5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등급제 실효성은 등급제가 어린이와 청소년을 유해한 콘텐츠로부터 잘 보호할 것이라는 믿음과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는 믿음을 의미한다.

연구결과, 중학생의 등급제 실효성에 대한 인식과 유의미한 연관성을 보인 중재유형은 '자율적/지지적 제한' 중재 및 '통제적' 중재로 나타났다. 전자는 연령에 맞지 않거나 부적절한 콘텐츠를 왜 금지하는가에 대해 자녀와 대화를 나누되, 부모가 설득적인 논리를 제시하는 유형을 말한다. 후자는 연령에 맞지 않는 콘텐츠에 대해 금지나 제한보다는 대화를 중요하게 여기지만 자녀의 의견보다는 부모의 의견이 더 강하게 작용하는 경우다[14]. 이 연구는 중학생들이 부모의 미디어 중재가 '자율적/지지적 제한'이라고 인식할수록 등급제의 실효성이 크다고 생각하지만, '통제적' 중재라고 인식할수록 등급제는 실효성이 없는 제도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점을 발견했다. 이와 함께, 폭력적 미디어에 많이 노출되는 중학생일수록 등급제는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다.

제한적 중재, 적극적 중재, 공동시청 중심으로 진행되는 기존 연구들이 서로 상충되는 결과나 모호한 해석을 보여 온 가운데[20], 이 연구결과는 부모의 미디어 중재 유형의 효과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예를 들어, 제한적 중재에 관한 연구들은 부모의 제한이 너무 약하거나 강력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Peterson과 Hann은 부모의 제한이 약하거나 지나칠 경우 미디어 노출로 인해 자녀들의 공격성 향이 강해진다고 주장했다[33]. 그러나 어느 정도가 적절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미디어 중재를 위한 유용한 가이드라인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에 반해 본 연구는 부적절한 콘텐츠를 금지하는 이유에 대해 부모가 설득적인 근거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제한적 중재가 이루어진다면, 긍정적인 중재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점을 보여주었다(‘자율적/지지적 제한’ 유형). 한편, 대화와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하는 적극적 중재 유형 역시 항상 일관된 효과를 보이는 것은 아니다. Collier et al.[20]은 그 이유를 적극적 중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세분화 작업이 부재한데서 기인한다고 본다. 즉, 미디어에 관한 자녀와의 대화가 긍정적 혹은 부정적으로 진행되는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는 의미다. 본 연구는 적극적 중재라도 부모가 자신의 의견을 고집하는 방식, 즉 부정적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미디어 중재[20]는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이 연구에서는 금단의 열매효과와 사회영역이론에 근거해 등급제가 청소년에게는 그들의 사적영역을 침해하거나 간섭하는 제도로 인식되고 있으며, 그 영역을 방어하고 자율성을 회복하려는 심리적 긴장관계에 등급제 문제의 본질이 있다고 주장했다. 즉, 현재 등급제의 문제는 이 과정에서 청소년들이 표출하는 반항 혹은 무관심의 결과라고 본 것이다. 이러한 인식에 기초할 때 부모의 미디어 중재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다. 이론적 차원에서 본 연구결과는 부모의 미디어 중재는 청소년의 자율성을 배려하면서 사적영역에 대한 간섭과 침해로 인한 긴장을 최소화하는 방향이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따라서 ‘자율적/지지적 제한’은 등급제 및 청소년의 미디어 이용과 관련해 유용한 중재방식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금단의 열매효과, 사회영역이론, 및 자기결정이론의 이론적 통합을 통해 향후 등급제 및 청소년의 미디어 이용 관련 연구가 보다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등급제의 문제는 부모와 자녀간의 문제만은 아니다. 프로그램 등급을 기술적인 알고리즘을 통해 자동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도 있었다[34]. 그러나 무엇보다 콘텐츠를 제작하는 방송사나 관련 기관부터 등급제의 요소를 제대로 지키려는 노력이 전제되어야 한다. 등급제에 대한 신뢰가 전제될 때 청소년의 등급제에 대한 실효성도 함께 높아질 수 있다. 또한, 부모의 미디어 중재가 적절하게 발휘될 수 있는 사회적/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부모들을 위해 중재방식에 대한 교육의 기회나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 청소년에 대한 미디어

교육은 부모에 대한 미디어 교육과 서로 중첩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서로 병행될 때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 [35].

연구결과, 부모의 미디어 중재유형 변수가 중학생들의 등급제 실효성 인식에 미치는 설명력이 크지 않았다. 여기에는 몇 가지 가능성이 있다. 무엇보다 등급제 실효성에 대한 중학생들의 응답에 있어 변량의 폭이 넓지 못한데서 기인하는 것일 수 있다. 아마도 어린이와 청소년에 대한 보호와 필요성으로 평가된 등급제 실효성 인식에 대해 중학생들은 사회적 바람직성 차원에서 대답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등급제 실효성을 측정하는데 있어 편의적 척도를 사용한 결과일 수도 있다. 미디어 환경의 변화로 등급제가 더욱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등급제의 실효성을 체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척도 개발이 필요해 보인다. 이와 함께, 등급제 실효성은 부모의 미디어 중재유형 이외의 다른 중요한 변수들이 관여되어 있을 가능성도 있다. 등급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새로운 변수들을 고려한 연구들이 진행될 필요가 있다. 발켄버그와 동료들[14]이 제시한 부모의 미디어 중재유형 척도는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아직 많은 연구에서 적용되지는 못했다. 다양한 중재유형 중 어떤 것이 등급제를 포함한 청소년의 미디어 이용과 관련한 문제에 접근하는데 효과적인지를 밝히는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참 고 문 헌

- [1] 박은희, 황성연, 심미선, “청소년보시시간대와 프로그램등급제의 실효성에 관한 연구,” 한국방송학보, 제22권, 제3호, pp.129-171, 2008.
- [2] 유홍식, *청소년의 폭력 영상물 이용 서베이 및 실태조사*, 청소년위원회, 2005.
- [3] 이호영, 윤성옥, “어린이·청소년 보호 방송정책에 대한 의견 조사 연구: 편성규제, 청소년시청보호 시간대, 프로그램등급제를 중심으로,” 한국방송학보, 제24권, 제1호, pp.152-196, 2010.
- [4] 김은미, *청소년 방송·통신 콘텐츠 이용 실태 분석*

- 연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2015.
- [5] B. Bushman and J. Cantor, "Media ratings for violence and sex: Implications for policy-makers and parents," *American Psychologist*, Vol.58, No.2, pp.130-141, 2003.
- [6] B. Bushman and A. Stack, "Forbidden fruit versus tainted fruit: Effects of warning labels on attraction to television violence,"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Vol.2, pp.207-226, 1996.
- [7] J. Gosselt, M. De Jong, and J. Van Hoof, "Effects of media ratings on children and adolescents: A litmus test of the forbidden fruit effect," *Journal of Communication*, Vol.62, pp.1084-1101, 2012.
- [8] A. Bandura, "Social cognitive theory of mass communication," *Media Psychology*, Vol.3, pp.265-299, 2010.
- [9] R. Benrazavi, M. Teimouri, and M. Griffiths, "Utility of parental mediation model on youth's problematic online gaming," *International Journal of Mental Health Addiction*, Vol.13, pp.712-727, 2015.
- [10] L. Clark, "Parental mediation theory for the digital age," *Communication Theory*, Vol.21, pp.323-343, 2011.
- [11] 안정임, "인터넷 이용 중재유형과 선행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방송학보*, 제22권, 제6호, pp.230-266, 2008.
- [12] 이숙정, 전소현, "인터넷 중독에 대한 부모 중재 효과 연구," *한국방송학보*, 제24권, 제6호, pp.289-322, 2010.
- [13] 조연하, 배진아,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의 가정 내 미디어 이용중재 연구," *미디어, 젠더 & 문화*, 제13권, pp.37-74, 2010
- [14] P. Valkenburg, J. Piotrowski, J. Hermanns, and R. de Leeuw, "Developing and validating the perceived parental media mediation scale: A self-determination perspective," *Human Communication Research*, Vol.39, pp.445-469, 2013.
- [15] J. Cantor and K. Harrison, "Ratings and advisories for television programming. National television violence study," Thousand Oaks, CA: Sage, Vol.1, pp.361-410, 1997.
- [16] P. Christenson, "The effects of parental advisory labels on adolescent music preferences," *Journal of Communication*, Vol.42, pp.106-113, 1992
- [17] B. Bushman, "Effects of warning and information labels on attraction to television violence in viewers of different ages,"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Vol.36, pp.2073-2078, 2006.
- [18] J. Smetana, "Parenting styles and conceptions of parental authority during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Vol.66, pp.299-316, 1995.
- [19] R. Larson, "Secrets in the bedroom: Adolescents' private use of media,"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Vol.24, pp.535-550, 1995.
- [20] K. Collier, S. Coyne, E. Rasmussen, A. Hawkins, L. Padilla-Walker, S. Erickson, and M. Memmott-Elison, "Dose parental mediation of media influence child outcomes? A meta-analysis on media time, aggression, substance use, and sexual behavior," *Developmental Psychology*, Vol.52, pp.798-812, 2016.
- [21] E. Deci and R. Ryan, "Self-determination theory: A macrotheory of human motivation, development, and health," *Canadian Psychology*, Vol.49, No.3, pp.182-185, 2008.
- [22] 이란, 홍지민, "미디어 환경과 사용에 대한 부모의 심성모형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4권, 제12호, pp.818-834, 2014.
- [23] M. Buijzen, E. Rozendaal, M. Moorman, and M. Tanis, "Parent versus child reports of parental advertising mediation: Exploring the meaning of agreement," *Journal of Broadcasting & Electronic Media*, Vol.52, pp.509-525, 2008.

[24] Y. Fujioka and A. Weintraub, "The implications of vantage point in parental mediation of television and child's attitudes toward drinking alcohol," *Journal of Broadcasting & Electronic Media*, Vol.47, pp.418-434, 2003.

[25] M. Buijzen and P. Valkenburg, "Parental mediation of undesired advertising effects," *Journal of Broadcasting & Electronic Media*, Vol.49, No.2, pp.153-165, 2005.

[26] S. Livingstone and E. Helsper, "Parental mediation of children's internet use," *Journal of Broadcasting & Electronic Media*, Vol.52, pp.581-599, 2008.

[27] G. Mesch, "Social bonds and Internet pornographic exposure among adolescents," *Journal of Adolescence*, Vol.32, pp.601-618, 2009.

[28] E. Vandewater, S. Park, X. Huang, and E. Wartella, "No-You can't watch that' Parental rules and young children's media use,"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Vol.48, pp.608-623, 2005.

[29] M. Bovil and S. Livingstone, *Children and their changing media environment*, A European Comparative Study, London, 2001.

[30] S. Livingstone, "Strategies of parental regulation in the media-rich home," *Computers in Human Behavior*, Vol.23, pp.920-941, 2007.

[31] S. Lee and Y. Chae, "Children's Internet use in a family context: Influence on family relationships and parental mediation," *CyberPsychology and Behavior*, Vol.10, pp.640-644, 2007.

[32] S. M. Hong and S. Faedda, "Refinement of the Hong psychological reactance scale,"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Vol.56, pp.173-182, 1996.

[33] G. Peterson and D.Hann, "Socializing children and parents in families," In *Handbook of marriage and the family*, Springer US, pp.327-370, 19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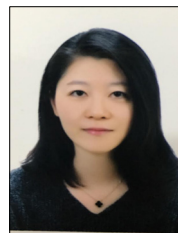
[34] 황선주, 조대제, "원형정합방법을 이용한 방송프로그램의 등급 인식 시스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4권, 제1호, pp.24-31, 2004.

[35] D. Walsh, "The challenge of the evolving media environment,"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Vol.27, No.2, pp.69-72, 2000.

저 자 소개

송 원 숙(Wonsook Song)

정희원



- 2002년 8월 : 숙명여자대학교 언론정보학부(학사)
- 2006년 2월 : 뉴욕주립대학교 버팔로 커뮤니케이션(석사)
- 2012년 9월 ~ 현재 : 숙명여자대학교 미디어학과(박사수료)

<관심분야> : 청소년과 미디어, 미디어와 사회

심 재 응(Jae Woong Shim)

정희원



- 1994년 2월 : 고려대학교 신문방송학과(학사)
- 1996년 2월 : 고려대학교 신문방송대학원(석사)
- 2006년 12월 : 인디애나대학교 텔레커뮤니케이션전공(커뮤니케이션학 박사)

- 2008년 3월 ~ 현재 : 숙명여자대학교 미디어학부 부교수

<관심분야> : 성과 미디어, 청소년 교육